

# 탄소소재 의료기기 지원센터 유치

전북대 고명환 교수팀, 104억 규모 의료기기 지원사업 선정

전북대학교 고명환 교수와 한갑수 연구교수팀(재활의학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탄소소재 생체 적합성 의료기기 지원사업에 선정 됐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4년 동안 104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국가사업으로, 탄소소재를 이용한 첨단 의료기기를 개발할 수 있는 전 과정을 지원할 특화된 연구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2015년부터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기 중개임시지원센터 폐지를 수행 중에 있는 고명환 교수는 첨단 혁신

의료기기 개발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진행해 오면서 전북지역 주력 산업인 탄소를 의료기기와 접목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후 의공학 박사인 한갑수 연구교수와 함께 구체적 기획을 시작했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도움에 힘입어 대형 국가과제를 수주했다.

이를 통해 2023년까지 총 104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전북대 병원 임상연구센터 인근에 1,400㎡ (424평) 규모로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총 29종의 의료기기 제조시설과 시험평가 장비를 구축하고 개발된

의료기기 임상시험과 상품화 기업지원사업이 추진된다.

한편 탄소소재 의료기기 지원센터가 구축되면 전북지역에서 생산되는 탄소소재를 활용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제품 제조 다양화와 의료기기 시장진입을 위한 새로운 기술 혜택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 의료기기의 발전 방향은 '생체적합성 신소재'에 달려있

다. 특히, 탄소소재는 우수한 생체적 합성과 X-ray 투과성이 좋으며 MRI 검사 시 간접이 거의 없는 등의 뛰어난 의학적 장점을 가지고 있어 최근 해외 의료기기 시장에서 중요한 영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고명환 교수는 "이 사업으로 전북 지역의 주력 산업인 탄소 산업과 의료기기 산업의 접목으로 지역 발전과 우리나라 의료기기 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단순한 연구 단계에서 그치지 않고 개발된 탄소소재 의료기기가 실제 임상현장에서 사용되는 상용화까지 이르게 해 의료 기술의 발전과 실질적인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영어체험학습센터(원장 김숙, 이하 전주영체)는 방과후 활동을 온라인 동영상 컨텐츠로 대체한다.

## 전주영체, 방과후 온라인 컨텐츠 제공

캠핑·마술 등 총 16편 제작

전주영어체험학습센터(원장 김숙, 이하 전주영체)는 방과후 활동을 온라인 동영상 컨텐츠로 대체한다고 밝혔다.

지난 3일부터 전주영체 홈페이지 (<http://jev.or.kr/온라인학습방/방과후프로그램>)에 탑재되는 동영상 컨텐츠는 홀비이킹, 캠핑, 마술, 종이축구, 바수놀이, 종이접기, 그림 그리기, 수수께끼 등 다양한 주제를 포함하고 있다. 또 미국 호주 나이프리카 공학국 캐나다 등 영어권 국가의 놀이문화와

해 스마트폰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온라인 동영상 컨텐츠는 요즘 학생들 사이에 크게 유행하고 있는 1인 크리에이터의 형식을 빌려 8명의 원어민 선생님들이 직접 연출하고 제작했다.

총 16편으로 제작된 동영상 컨텐츠는 홀비이킹, 캠핑, 마술, 종이축구, 바수놀이, 종이접기, 그림 그리기, 수수께끼 등 다양한 주제를 포함하고 있다. 또 미국 호주 나이프리카 공학국 캐나다 등 영어권 국가의 놀이문화와

관련돼 있어 학생들이 다른 나라의 문화를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돋는 문화교류의 장이 되도록 했다.

전주영체가 제공하는 이번 방과후 동영상 컨텐츠는 학생들이 혼자서도 손쉽게 따라 할 수 있으며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유용한 표현들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익힐 수 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또한 동영상 컨텐츠와 연계된 학습지를 함께 탑재해 학생들이 단순히 활동을 따라 하는데 그치지 않고 배운 영어표현을 복습하고 익힐 수 있는 학습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장은성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행동수칙

자료: 질병관리본부

### 일반 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말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손씻기



마스크착용

###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하지 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 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

## 전주대-엄지식품, 산학협력 모델

### '실습부터 채용까지' 활발

전주대학교(총장 이호인)와 (주)엄지식품(회장 미영보)은 기업과 학교가 협력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주)엄지식품과 전주대 LINC+사업단(단장 주송)은 2018년 협약을 체결한 후 생산 및 R&D 분야 현장실습부터 학과와 기업이 참여하는 캡스톤디자인, 우수 인재 채용까지 모든 형태의 산학협력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발굴하겠다"고 전했다.

신정규 교수는 "(주)엄지식품이 실무 교육과정에 직접 참여해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기업과 학교 그리고 학생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 1학기에 수행된 전주대-(주)엄지식품의 식품상품개발 캡스톤디자인 공동 프로젝트 결과물은 4일 전주대 하림미션홀에서 개최되는 산학 조기화과 제18회 졸업작품전에 전시됐다.

/장은성 기자

어 기획, 제품설계, 콘셉트 개발, 포장 등 제품개발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해 과제를 수행하였으며, 우수한 성과를 낸 학생에게 취업의 기회까지 제공됐다.

미영보 회장은 "전주대 한식조리학과와 진행한 캡스톤디자인 공동 과정을 통해 기업이 원하는 새로운 제품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학교와의 지속적인 산학협력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발굴하겠다"고 전했다.

신정규 교수는 "(주)엄지식품이 실무 교육과정에 직접 참여해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기업과 학교 그리고 학생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 1학기에 수행된 전주대-(주)엄지식품의 식품상품개발 캡스톤디자인 공동 프로젝트 결과물은 4일 전주대 하림미션홀에서 개최되는 산학 조기화과 제18회 졸업작품전에 전시됐다.

/장은성 기자

## 전북교육청, 청렴소식지 '슬기로운 청렴생활' 창간

것도 주고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청렴소식지는 도교육청 감사관실 홈페이지와 내부 전산망, 각급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교직원·학생·학부모와 공유한다.

송용섭 감사관은 "청렴퀴즈, 웍툰 등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된 다양한 청렴소식을 교육가족에게 알려 나가고자 한다"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전북교육을 실현하는 데 '슬기로운 청렴생활'이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전북대 LINC+사업단, 농식품 분야 취업캠프 호응

전북대학교 LINC+사업단(단장 고영호 교수)은 농식품 분야 졸업 취업캠프를 열어 큰 호응을 얻었다.

사업단이 운영하는 산학교육아카데미는 지난 2일과 3일 남원 스위트호텔에서 농식품 분야로의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장 전문가 특강과 맞춤형 이미지 컨설팅을 진행했다.

전북대 LINC+사업단은 에너지와 농식품, 전통문화 등 3개 분야를 특화시켜 교과과정과 비교과과정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을 인증해주는 E.A.T 교육인증제'를 시행해 많은 학생들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 캠프에서는 농식품 분야 현장 전문가로 '영인명촌'의 정두철 대표가 특강을 열어 큰 호응을 얻었다.

/장은성 기자

'한국전통식품의 성장과 미래'라는 주제로 식품 브랜드 성공과정에 대해 특강을 진행했다. 또한 취업 면접을 대비한 스피치 교육과 개인별 이미지 진단 시간을 가져 학생들의 강점을 살리는 면접 코칭으로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특히 1:1 퍼스널컬러 진단 및 면접 시 호감을 높일 수 있는 이미지 메이킹 프로그램을 진행해 학생들의 취업 면접을 대비한 자신감을 높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이틀동안은 학생들이 사전에 준비한 면접 복장을 갖추고 실제 면접 환경을 조성한 모의 면접을 진행해 실제 취업 준비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장은성 기자